

글 | 이창경 (신구대학 교수/박물관장)

한국 전적분야 무형문화재의 전승현황 고찰

1. 머리말

전적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지식의 총체로 존재한다. 생산된 지식은 전적을 통하여 후대에 전해지고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전적 출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필자의 역량이다. 이와 함께 지식을 담아 전달하는 도구를 생산하는 기술, 즉 전적을 생산하는 공예기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전적은 내용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외형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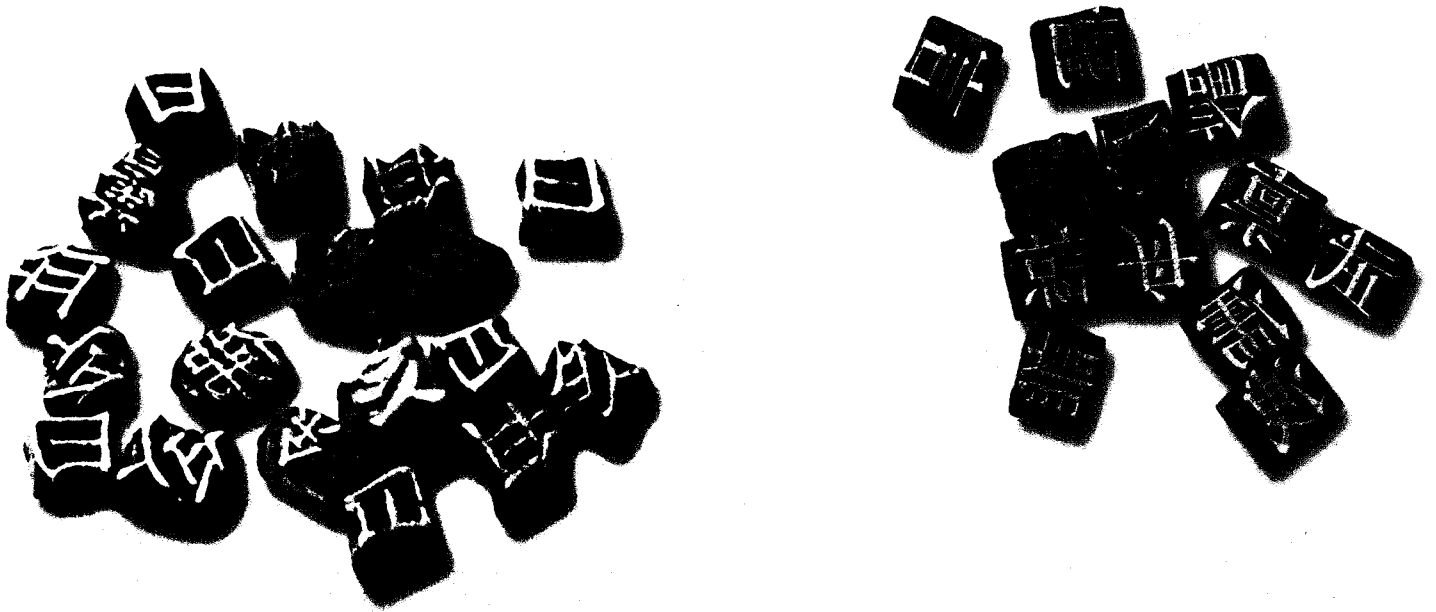
유네스코에서는 1997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적 가치가 있는 서적, 문서 등 기록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진품이어야 하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해야 하고, 유일한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인류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의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팔만대장경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민족과 국가를 떠나 세계인이 공동으로 보존해 가야 할 기록문화유산을 선정하는 것은 그 내면에 인류 발전의 지혜와 지식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적은 출간 자체에도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지식생산은 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생산된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생산하는 계층은 장인이었다. 전적을 만들어내는 장인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책의 전달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의 생산자, 매체 생산자가 동시에 중요한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전통시대 전적 생산을 담당할 장인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들이 발전시켜 온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다양한 문화재들



II. 전적 출간 장인의 조직과 위치

생산시설이 충분치 못했던 전통사회에서 전적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은 신성시될 만큼 강렬했다. 전적이 내용의 전달이라는 직접적인 요소와 견고성과 미적인 요소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장식적인 측면이 중시된다. 이 장식적 요소의 담당계층이 바로 장인이다. 내용을 생산한 필자의 생각은 정신으로 전승되지만 책을 만드는 장인의 기술은 기능으로 전승된다.

조선시대에는 전적 생산을 담당하는 장인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경공장 본조에 배첩장 2인, 필장 8인, 상의원에 청염장 10인, 홍염장 10인, 목장 4인을 두었고, 교서관에 야장 6인, 균자장 40인, 인출장 20인, 각자장 14인, 주장 8인, 조각장 8인, 목장 2인, 지장 4인을 두었다. 선공감에는 아교장 2인, 사첨사에도 인출장 2인, 내수사에 야장 2인, 주장 10인, 조지서에 목장 2인, 렬장 8인, 지장 81인을 두었다.

전적 출간의 과정에서 보면 종이를 생산하는 지장, 활자를 만드는 주장·야장, 목판을 만드는 각자장·조각장, 붓을 만드는 필장, 먹을 만드는 목장, 활자를 고르게 하는 균자장, 인쇄를 담당하는 인출장, 표지를 만드는 배첩장, 제본을 담당하는 장책장 등을 두었다.

여기에 제시한 장인들이 모든 시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전적을 간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곧 장인이 갖고 있었던 전문적 기능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 기능의 전수와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전적 생산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질 좋은 종이를 생산, 사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토록 하였고, 정교한 활자를 만들어 선명한 인쇄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 서적은 쇠로 진배하고 비단으로 표장하여 장엄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이렇듯 전적문화 발전의 일선에 뛰어난 기능을 갖춘 장인이 존재하였기에 우수한 전적문화를 보유할 수 있었다.

또한 전적 생산의 전 과정이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교서관에 감인관을 두어 인쇄 전반을 감독하게 하였으며, 감교관을 따로 임명하여 내용의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인쇄된 책 한 권에 글자 한자의 오류가 있으면 균자장을 끌 30에 처하고 한 자가 더 틀릴 때마다 한 등을 더하였다(대전후속록 3 예전 집행).



무형문화재인 오국진선생, 유행영선생, 홍종진선생 (사진왼쪽부터)

인출장도 인쇄된 책 한 권당 한 자가 먹이 진하거나 혹은 희미하면 태 30에 처하고 한 자마다 한 등을 더하되 자수를 제한하여 치죄하였다(대전후속록 3. 예전 잡령).

이와 함께 전적을 담당 관원이 자리를 옮겨갈 때는 반드시 인수인계 서류에 책판 목록을 작성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전적이 갖는 공익성을 인식하고 취해진 이러한 제도는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면에서도 완벽을 기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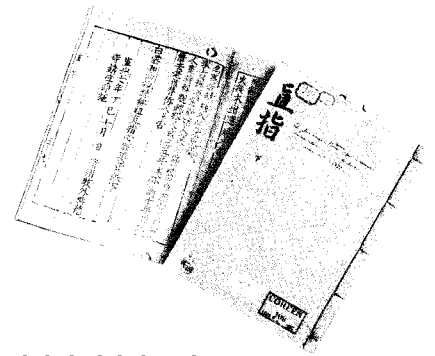
다음은 인조 4년에 이민성이 교서관 제조의 뜻으로 올린 상소로 임란 후의 전적 생산 장인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경국대전》에는 본관의 수장제원이 44, 장책제원이 20, 균자장이 40, 인출장이 20, 각자장이 14, 치장이 6, 목장이 2, 주장이 8인데, 현재 있는 인원수는 경외를 아울러 계산해도 다만 수장제원은 19명으로 원수에서 25명이 부족하고, 장책제원은 19명으로 1명이 부족하고, 인출장은 1명으로 19명이 부족하고, 각자장은 2명으로 12명이 부족하고, 그 나머지 장인은 원래 한 명도 없어서 매번 책을 인출할 때마다 사장을 모집하여 급료를 주고 사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출하는 일이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항상 문제가 생길까 근심하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승정원일기, 인조 4년).

Ⅲ. 전적출간 기능의 전승과 확산

1. 무형문화재 지정과 전승

19세기 일본을 통하여 서구의 인쇄기술과 제본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통 제작 방식의 도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기능도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량의 정보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드는 전적 생산은 운명을 다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더욱이 일제침략기를 거치는 동안 무형의 전통은 단절과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62년부터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하여 무형문화재법을 제정하였다.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문화재보호법 제3조),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 등의 예능분야와 공예, 음식 등으로 분야를 나누었다.

또한 사라져 가는 무형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기능을 원형대로 취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보유자로 지정하고 있다. 전승체계는 전수생, 이수자, 전수교육조교, 보유자(인간문화재), 명예인간문화재의 5단계가 있다.

전적분야에서 1992년에 모필장이 처음 지정되었으며 종이 생산은 1995년에 지장을, 1996년에 금속활자장·각자장·배첩장 등이 지정되었다. 2004년에는 시도문화재로 각자장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전적분야 무형문화재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	지정일	전수조교
지장	유행영 중요117호	2005-2008 2008 명예보유자	
	장용훈	2010	
	홍춘수	2010	
금속활자장	오국진 중요101호	1996	임인호 인정예교
각자장	오옥진	1996	금각한(2005)
배첩장	김표영 중요102호	1996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	지정일	지역	기타
지장	장용훈	1996	경기 제16	
	안치용	2007	충북 17호	
	이상룡	1995	경북 23호	
	김삼식	2005	경북 23-2	
각자장	이창석	2004	강원 16호	
배첩장	홍종진	1999	충북 7호	
붓장 모필장	김종준	2004	울산 3호	
	안종선	2005	광주 4호	
	권영진	1992	서울 5호	
	이인훈	2004	대구 15호	

소실 위기에 처한 관련분야 장인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육성해 온 일은 기능의 단절을 막고 계승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목별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보존이 아니라 확산의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 문화산업과 연계한 테마축제 개최

무형문화재 지정이 원형의 보존과 전승에 목적이 있다면 지역문화 테마축제는 전통의 확산과 문화산업화에 초점이 놓인다. 지역의 연고성을 고려하여 이 분야를 관광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특화시켜 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적 분야의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는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청주직지축제'와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원주한지문화제, 전주에서 개최하는 전주한지축제 등이 있다. 전적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장인이 동원되지만, 두 개 분야만이 지역 축제와 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에 1회를 개최한 청주직지축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한 직지심체요질의 간행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그 창조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가기 위해 마련된 축제다. 금속활자 재현, 학술세미나, 판화시연 및 전시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전주한지축제는 1997년 제1회 개최 후 2011년 제15회를 개최하였다. 한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 한지 신수요 창출 및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구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 전주한지 패션쇼, B2B, B2C 행사, 업계 상품관 운영, 한지창호마르기, 한지실험 등 행사가 진행된다.

원주한지문화제는 1999년 제1회를 개최한 이래 제13회가 9월 28일부터 5일동안 한지테마파크서 개최된다. 한지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에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한지대전도 행사기간 중 열린다. 원주한지활성화를 위한 상품 및 포장, 디자인 박람회도 함께 열린다.

충북 괴산 토종닥나무 가공단지에서 신평한지축제도 3회째 개최되고 있다. 한지 학술회의, 전시, 제작시연, 한지뜨기체험, 한지시화전, 한지공예작가 초대전 등이 열린다.

지역 연고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고 있는 관련 축제는 문화산업과의 연계, 관광상품화, 전승의 확산 등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방적인 관주도,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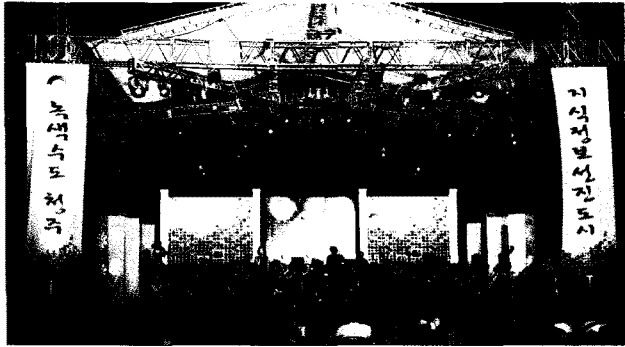
원주한지문화제에서 소개된 한지제작과정

3. 무형문화재 기록물 간행과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지정 육성이 원형 보존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았을 때, 어디까지가 원형인가? 하는 점이 문제시 되어 왔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창조이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작업 현장을 영상기록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곧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상,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음반, 전통의례기록영상 등 세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금속활자장 오국진, 각자장 오옥진, 한지장 류행영 등의 영상물은 각각의 역사와 방법, 제작 실연 전 과정, 전승현황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기록물 제작과 함께 작업내용, 전승과정 등을 고품격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일반인에게 보급함으로써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록도서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필자와 사진작가가 공동으로



직지를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청주직지축제 모습.



원고를 생산한다. 편집 디자인은 전문출판사에 위탁 출판함으로써 도서의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승 활성화 위한 방안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통공예 종목의 전승 환경을 개선하고 전승활동을 촉진하여 전통공예 문화의 대국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이다.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사업, 지역의 전통공예 문화관광자원화 방안, 전통공예문화 보급·선양을 위한 작품전 등이 포함된다.

IV. 맺는말

전적의 생산은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책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이 개발되고 이는 지식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 종이를 만드는 지장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금속활자장, 각자장은 어떻게 하면 글자를 선명하고 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또 장책장은 어떻게 하면 읽기에 편리하고 견고하며 아름다운 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글을 쓰는 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자의 생각을 책으로 완성하는 장인의 역할 또한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다.

지식의 축적과 확산, 정보의 전달의 유일한 매체가 책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IT시대를 넘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가 인터넷 상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태블릿컴퓨터·넷북·스마트폰 등의 IT 기기 등과 같은 개인 컴퓨터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즉 모든 정보를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식의 유통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시대에 종이, 활자, 장책의 무수한 수공이 들어가는 전적의 생산은 필요한 것인가? 그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할 필요성은 있는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종이를 발명하고, 활자를 발명하고, 견고한 장책의 기술을 개발한 것은 당시로서는 폭발력을 가진 것이었다. 오늘의 정보전달의 환경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이 단순히 현실적 필요성, 상업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적 분야를 포함한 무형문화재의 계승방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